

##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남제주군 안덕면 무등이왓을 사례로-

김 지 수\*

### 국문초록

인간의 삶의 흔적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소규모 공간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의 모든 사물들은 항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시·공간적 경험을 통해 인지된다. 이러한 시·공간적 경험들의 현상들은 구조적 메카니즘들의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추론 역시 시·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보여지는 경관의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시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역사적 메카니즘과 함께 그 공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생활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때 역사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역사에서 마을의 시·공간적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메카니즘 중에 가장 강력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1948년에 발발한 4·3이다. 특히 4·3 전개 당시 중산간 지역이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간주되면서 내려진 소개령은 중산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건 없건 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사람들이 타의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게 되고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들은 현재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연구자는 이들 중산간 마을들 중 독립된 행정구역인 '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와 인구수를 지니고 있던 '무등이왓'을 연구지역으로 삼아 공간의 변모와 당시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겠다.

\* 서귀포여고 교사

연구지역인 무등이왓은 다른 중산간 지역들처럼 식수원의 어려움으로 설촌하기가 힘들었으나 화전농을 하기에는 적합했다. '임술록(壬戌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관에 의해 핍박받던 사람들, 관에 쫓기던 사람들이 마을로 이주해 화전을 만들어 가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로는 조, 메밀, 보리, 콩 등이었으며 감자도 많이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화전농업과 함께 목축을 하기에도 적당한 환경이었으므로 무등이왓은 87가호가 형성될 만큼 부유하고 리세가 큰 마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수확물들에 대한 관의 경제적 수탈도 심했다 일제시대에는 중문에서 한림까지,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우마차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이러한 중심적 위치에 있던 마을은 1948년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총살하겠다'는 포고에 따라 공동체는 급격히 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당시 가해졌던 민간인 집단 학살은 소진-소개-처형으로 이어지는 초토화 작전의 전개속에서 자행되었다. 사전 아무런 통보 없이 마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어 아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산(山)사람이 먹을 것을 좀 달라기에 거절하지 못하였던 죄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동광리는 군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소개령 없이 1948년 11월, 집단 학살을 시작으로 무차별한 학살과 방화가 빈번히 일어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48년 음력 10월 15일 1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학살된 것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0여명이 희생되었다.

4·3이전에 동광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던 무등이왓은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살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가옥들이 불타면서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마을의 경관이 변하여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고지가 있는 해안마을로 소개해 가거나 특정한 소개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해안마을로 내려왔다.

그러나 소개되어 내려온 중산간 마을사람들은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들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남아있는 중산간 마을사람들과 해안 마을사람들 간의 해묵은 갈등 때문이었다. 입산한 사람들은 토벌대의 추적과 굶주림, 그리고 혹독한 추위에 직면하였고 해안마을의 안전지대로 피신한 사람들 또한 형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3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산간 마을에 복구령이 내려지는데 일부 마을들은 정책적으로 복구취락을 정하여 기존의 마을을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공비들이 출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동광리의 복구사업은 1953년 취락재건에 들어가 1차적으로 95세대 가량이 서광동리에서 1년간 거주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현재 동광리의 중심지는 허허벌판으로 농사짓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타지방으로 떠나 40여 세대만이 취락 재건에 힘썼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이왓이 복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역사적 상처만을 남긴 채 옛 취락터만이 옛날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당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중산간 사람들 대부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되어 버렸고 그들이 오랜 세월 형성해 온 마을의 공동체는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들은 현재 까지도 그들이 생활해왔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소규모의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중적인 취락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마을사람들의 상이한 의식을 총체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시·공간적 경험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당시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기 위해 그 지역을 복구하고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후세에 대한 역사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I. 序 論

## 1. 연구 목적과 의의

공간은 인간의 유한한 삶이 영위되는 터전이며, 그 삶의 흔적이 세대를 통해 누적적으로 각인되는 역사의 '場'이다. 특히 인간들의 삶의 흔적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소규모의 공간이 마을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을안에서의 모든 사물들은 항시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시·공간적 경험을 통해 인지된다. 물론 현상들의 시·공간적 현상들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의 서술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메카니즘들의 설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구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추론 역시 시·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을에서 보여지는 경관상의 변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시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역사적 메카니즘과 함께 그 공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생활사<sup>1)</sup>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때 역사와 경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4·3이다. 연구자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 중산간 마을들의 경관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4·3당시 중산간 지역이 敵性地域으로 간주되면서 내려진 소개령은 중산간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에 상관없이 큰 충격이었다. 본 연구는 이

---

1) 생활사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사회학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지리학에서도 소지역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활사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영어의 'life-history'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 생활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즉, 생활사연구가 가진 의미로서 역사의 관점, 개인 중심적 접근, 생명=생활연구라고 하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외, (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서울)

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인 제주도의 취락분포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관 변모의 원인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당시 마을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재현해봄으로써 제주도 취락 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중산간 마을의 중요성과 변모의 과정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4·3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각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와 진상규명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 문제에만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당시 좌·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심지어 '빨갱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일반 사람들의 생활사속에서 4·3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미흡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자는 4·3당시 큰 피해를 입어 경관이 변모된 한 마을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중산간 마을사람들의 생활상과 주거지 이동과정, 그리고 그 후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지역의 취락 내부 구조에 대하여 현상적 시·공간적 해석을 통한 변화를 고찰한다는 것은 일부의 과정상의 차순이나 방법상의 오류를 극소화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2. 연구 방법

4·3을 중심으로 시계열적인 연구방식을 채택하여 4·3이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의 마을의 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연구자는 문헌조사와 야외조사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전반적인 기존 연구자료와 4·3에 관한 여러 자료들과 각 분야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와 1950년대는 한반도와 제주도가 사회·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빈약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면접조사에 의한

증언자료들로 보충하였다.

야외조사에서는 1:25,000 지형도를 분석하여 현재의 중산간 취락과 4·3이전의 취락의 위치를 비교하고, 1913년부터 제작된 토지대장과 그 당시 제작된 1:1,200 지적도를 참조하여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경관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무등이왓에 살았던 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공간변화를 비교하였고 현재 동광리의 중심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의 공간이동을 살펴보았다. 4·3당시의 소개와 해안취락으로 이동과정은 각 마을의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당시 생활을 경험했던 노인들의 증언이다. 이 연구는 많은 부분 이들 노인들의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증언자료가 가지는 한계나 위험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노력하였고,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논거로 밀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어떤 논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제주도는 1948년 4월 3일 제주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4·3이 남겨 놓은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 중요하게 남아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살펴 본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중산간 마을들의 입지와 마을 사람들의 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마을이 폐합 또는 소멸되고 거주 공간의 구조면에서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의 전개 과정을 동광리의 '무등이왓'이라는 중산간 마을의 공간변화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겠다.

## II. 4·3 이전의 생활경관

### 1. 마을의 형성과정

만주동은 현재의 동광리에 위치한 밝은 오름의 서쪽에 입지하였다.

만주동에서 살던 사람들 중 임씨가 먼저 현재의 동광리 서쪽에 있는 <삼밭구석(麻田洞)>으로 이주했고 만주동은 자연스럽게 폐촌되었다.<sup>2)</sup>

그후 1700년대 삼밭구석의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제주양씨, 하씨 등이 무등이왓에 입주하면서 마을은 점점 커지게 되고 식민지 시대에는 <자단리(自丹里)>에서 가장 중심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마을은 초기에는 <자단리>에 속했다가 한때는 <광청리(光淸里)>로 불린때도 있었으며 형세가 춤을 추는 어린이를 닮았다고 해서 <무동동(舞童洞)>이라고도 불려졌다.<sup>3)</sup> 1700년대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자단촌>이라는 명칭을 발견할 수가 있다.(그림1) <자단리>는 동광, 서광, 덕수, 사계까지 합친 지역을 통틀어 불리는 지명이었다. 자단리라는 지명의 근원은 밝은 오름(明岳)에 나무가 무성하였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고 보니 밝은 오름이 아니라 흙이 붉은 <붉은 오름>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붉은 오름이라는 뜻의 <자단리>가 되었다

그림 1. 호남전도 중 안덕면 -자단리

자료: 호남전도(1700년대)

- 
- 2)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편(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pp. 60-62.
- 3) 동광리의 지명은 자단리에서 광챙이(光淸里) → 새광챙이 → 동광챙이 → 동광리로 분화가 되었다.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출판부> 「대정군읍지」와 <대정지도>등에 '신광챙이' 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제시대 지도에는 동광리 무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자단리〉라는 명칭은 오랜기간 사용되다가 18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동광과 서광을 신칭, 광칭으로 불렀다. 1899년에 제작된 대정군읍지에 수록된 지도를 보면 지금의 동광 부분이 〈신칭리〉, 〈광칭리〉라는 지명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칭, 광칭은 오래지 않아 〈광칭리〉로 통칭되고 일제시대에 와서 현재의 동광과 서광리로 구분되었다.

무등이왓에서 서북쪽으로 1km사이에 두고 〈조수괘〉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조수괘〉라는 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마을이 번창하였을 때는 약 30여호를 이루며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는 10여호 정도로 줄었다.<sup>4)</sup>

## 그림 2. 옛 동광리-광칭리

자료: 대정읍지 중 대정지도(1899년 제작)

무등이왓은 본래 식수원이 없어 마을터로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화전 농사를 하기에는 적당한 지대였다. 주요 재배작물로는 조, 메밀, 보리, 콩, 감자 등이었다. 이 수확물들에 대해서 관의 경제적 수탈도 심했다. 당시의 농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무등이왓의 연자방아다. 제주도의 각 취락에서 연자방아를 제작하는 경우를 보면, 한 마을에 연자방아가 설치되었더라도 인구 증가에 따라 또다시 설치되는 경우와 일부

4) 제주 4·3 연구소(1992), 「4·3 長征」, 제3집, p.25.



마을의 부유층에 의해 사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지역인 무등이왓에는 현재 연자방아가 설치되어 있었던 터만 남아 있을 뿐 모두 철거되거나 마을이 전소되면서 연자방아도 이때 파손되어 돌담을 조성할 시에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그곳에 거주했던 노인의 증언<sup>5)</sup>을 통하여 재현해보면 다섯지역에 연자방아가 있었다.

## 2. 토지이용 경관

무등이왓은 동광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 마을이었다. 「구 토지대장」<sup>6)</sup>에 의하면 초기에 모두 국유지였던 토지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사유지가 하나씩 생겨났다.

무등이왓의 토지이용 경관은 다른 제주도 화전이 발달했던 중산간 마을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화전의 성립은 유림이 주로 거주하던 증핵취락의 내축으로 생활공간의 내륙이동을 조장하였고 그것은 결국 수직적으로 근세의 상한취락(上限聚落)을 형성하였다는데 지리적 의의가 있다.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일대의 모든 토지가 1913년(大正2년)에 사정(査定)한 결과 모두 국유지이다.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이 시기가 화전을 정리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던 시기였다. 그 후 대부분 1922년(大正11년)을 전후로 하여 개인 소유지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정착농의 형태가 형성된 것이다. 일제 당시 87호가 살았던 무등이왓의 주민 대다수가 마을 공동목장에서 소나 말을 키우는 일을 주업으로 하였고 밭에서는 밭벼(산뎬), 메밀, 콩, 조, 보리, 면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하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의 목장지대는 나라에 진상하는 말을 키우는 곳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제시대에는 증문에서 한림까지,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목

5) 신원숙(67세-1948년 당시 14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1999년 10월 3일.

6) 남제주군 지적과(1913), 토지대장.

마차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소나 말을 여기서부터(무등이왓) 줄을 세우면 원물오름까지 한줄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쥬. 그 정도로 목축이 발달했던 곳이라."<sup>7)</sup>

### 그림 3. 식수원으로 이용했던 원물가는 길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작성

### 3. 마을의 공간 구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화전과 목축에 종사하던 이 마을은 87여호가 밀집되어 있는 집촌(集村)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 무등이왓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포장도로는 1996년에 완공된 것이며 포장도로를 따라서 옛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 집터마다 그대로 남아있는 대숲은 그 곳이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7) 하춘자(62세, 여), 개인면담, 안덕면 서광리, 1999년 8월 20일

그림 4. 옛 무등이왓의 공간구조

자료: 1913년 제작된 지적도(1:1,200)(남제주군 소장)  
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마을의 중심지에는 강위경씨가 설립한 <광선사숙>이라는 사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마을에 소규모이지만,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마을의 인구와 경제력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곳 광선사숙에서는 무등이왓에 거주하던 아동들이 교육을 받았고 훈장은 마을에서 학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그래서 현 동광분교의 전신인 동광간이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광선사숙이 이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였고 소규모이지만 아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운동

장 공간도 마련되었다. 광선사숙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마을의 공적인 사항을 알리는 광고판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 광고판이 있던 곳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이 곳에서 사람들은 마을의 중요 사항 등에 대해 회의를 하거나 한담하였고 아이들은 말타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광고판이 놓였던 길을 따라 가면 <산방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경관을 볼 수 있는 <활쏘동산>이 있다. 실제로 옛 무등이왓 사람들은 경관이 훤히 내다보이는 이 곳에서 과녁을 설치하고 활쏘기를 즐겼다.

### III. 4·3의 전개에 따른 마을의 붕괴

#### 1. 무등이왓에서 4·3의 전개과정<sup>8)</sup>

정상적으로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간주한 지역에서 좌익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산간 지역에 먼저 소개령을 내리고 나서 마을들을 토벌하여 방화를 하거나 집단 학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당시는 거꾸로 되어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마을 토벌 작전에 돌입하였다. 좌익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산(山)사람(무장대)'이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죄로 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았던 지역이 바로 중산간 마을이다.

동광리 마을에 대해서 공식적인 소개령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토벌대가 마을 이장에게 소개령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접근이 힘든 유격대들의 활동지역이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고 토벌대로서는 유격대들의 근거지와 가까웠던 동광리 주민들 전부가 토벌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8)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글들에서 인용하고 증언자의 증언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제주 4·3연구소(1991), 「4·3과 역사」, 제29호; 동연구소, 「4·3장정」; 제주 4·3 제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전게서; 동연구소(1993), 「이제사 말합수다(I,II)」.

일부 다른 중산간 마을의 경우 군인들에 의한 공식적인 소개령이 떨어진 며칠 후 토벌군들이 들어와 대대적인 마을 방화와 더불어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으나 동광리는 군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소개령 없이 1948년 11월, 집단 학살을 시작으로 무차별한 학살과 방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의 대다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안취락으로 내려가지 않고 토벌군의 공격을 피해서 낮에는 마을 근처 숲이나 굴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식량을 장만하려 집으로 돌아오곤 하던 피난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 즈음 해변으로 소개한 이웃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소개지에서 곧바로 집단 총살당한 일도 있어 소개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sup>9)</sup> 동광리 무등이왓은 4·3을 거치면서 인명 피해도 안덕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1948년 음력 10월 15일을 시작으로 1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학살된 것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0여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잠복학살을 기점으로 마을을 떠나 <큰넓개>에서의 어두운 생활과 <불레오름>까지 피난을 갔다가 귀순해 정방폭포 등지에서 집단으로 학살되어 시신도 없어서 <헛묘>를 조성하는 과정에 이르렀다.

“말로 고통은 이해가 안가주. 울면서 살려달라는 어린 아이들을 농사짓던 것들을 집어놓고 불태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지. 그때 그것들 아직도 살았 이신가? 살았 이시믄 한번 그 얼굴 보고파. 멀쩡한 사람인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게.”

음력 10월말에 접어들면서 토벌대에게 발견되어 죽어가는 마을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일들은 숨어 사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피난조차 할 수 없던 사람들은 집 근처에 숨어 있었다. 동광리에는 토벌대들이 다른 중산간 마을과는 다르게 아주 쉽게 몇 번씩이나 올라와 마을 사람들을 대

9) 신원숙(남, 67세),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무등동, 2000년 3월 5일.

상으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동광리는 한림, 중문, 대정면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토벌대가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한림 주둔 토벌대에게 붙잡힌 사람들처럼 중문 주둔군에게 붙잡히면 정방폭포에서, 대정 주둔군에게 걸리면 모슬봉에 끌려가 각각 총살됐다.<sup>10)</sup>

무등이왓에 몇 가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자나 문헌마다 조금씩 그 기록이 다르다.<sup>11)</sup>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7가호에 달한다. 무등이왓(무동동), 삼밭구석(마전동), 조수괘, 간장리 등의 자연 마을에서 희생자만 2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처참한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마을 전체 인구의 약 20%정도였다.<sup>12)</sup> 이들중 일부는 산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주변 해안마을인 사계, 화순이나 대정 등으로 피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4·3이전 동광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집촌이 형성된 무등이왓은 4·3을 겪으면서 점차 경관이 변하여 갔다.

#### 그림 5. 학살터(1948년 음력 10월 15일)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10)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초토화 작전의 실상", 「4·3은 말한다」, 전예원, p.255.

11)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에는 130여호, 「4·3은 말한다」에는 80여호로 기록되어 있으나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토지대장에 의한 조사로서는 87호로 헤아려진다.

12)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무동동, 2000년 4월 5일.

## 2. 마을의 疏開 경로

혹한의 겨울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산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은 선무 공작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민들을 선별하여 죽이는 학살은 멈추지 않았다. 군의 토벌대가 산악 지역에 주둔소를 설치하는 시기도 1949년 2~3월 경부터인데, 안덕면의 경우는 <병악>에 토벌대 주둔소가 설치되었다. 중산간 부락에서 학살을 피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잡혀서 수용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병악> 앞에 <대난도>라는 곳에 3중대가 주둔했다. 막상 귀순하기로 결심하며 내려가면서도 혹시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몇번씩 주저하기도 했다고 한다.

“내가 가장 오래 동안 이 무등이왓에 소개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지. 부모님은 돌아가셨는지, 어졌는지 알길이 없고 그저 고아가 되버렸구나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밑의 마을로 내려가젠 허문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가접시나?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우리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병악의 주둔소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주둔소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갔는데 군인들이 나를 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무등이왓에서 왔다. 하니까 너 빨갱이구나, 잘 왔다. 허드라고, 그러다가 안덕지서로 넘겨지게 됐는데 거기서 누나를 만났지.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애길 허는거라. 그래서 난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족 또 같이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난리통이고 뭐고 기쁘기만 허영게.”<sup>13)</sup>

안덕면 사람들 60여명은 모두 화순 전분공장으로 옮겨졌다. 친척들이나 가족들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하나 둘씩 풀려났다. 그후 그들은 사계리와 화순의 연고지에서 집을 빌어 거주하면서 마을이 재건될 때까지 7년을 살았다. 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 사람들

13)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5일.

은 이와 같은 수용소 생활을 거쳐 모두 해변마을로 내려갔다. 그때까지도 잡히지 않았던 잔류 무장대들과 귀순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남아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진 채 식량을 구하러 중산간 마을 주변을 서성이다 토벌대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마을의 붕괴 과정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찾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해안 마을이 아닌 해안선에서 5km이상의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간주된 중산간 지역의 마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옛 화전개척민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 불에 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마을을 떠나야 했다.

300여년 동안을 안타면 동광리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무등이왓은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서 마을로서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옥은 모두 불에 타고 경제적 융성함의 상징이었던 연자방아는 방화의 과정에서 그 자취를 잃어 버리게 되고 열심히 수확한 산디(밭벼)나 메밀은 사람을 생화장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 소와 말의 숫자를 자랑하며 나라에 진상까지 했던 목축도 사라졌다. 마을의 거주민들이 타지로 흩어지고 가옥들이 소멸되면서 공동체로서 의미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마을소유였던 공동목장은 마을 공동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부는 개인에게 매매하거나 군의 소유가 되었고 다시 마을을 예전처럼 찾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들이 해가 갈수록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4·3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이들은 아예 타국땅에서 고향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무등이왓의 토지들은 서서히 타지 사람들의 몫이 되어갔다.



그림 7. 올래의 흔적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그림 8. 연자방아터의 팽나무.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 4. 소개지에서의 생활상

토벌대의 교두보가 된 지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 사람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적인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괴로움을 겪었던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들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남아있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과 해안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개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연고지를 찾아 내려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다지 편안하게

있을 처지가 못되었다. 소개되어 내려간 이들의 삶 또한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다. 입산한 도민들은 여전히 토벌대의 추적에 시달려야 했고 여기에 다시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라는 새로운 적과 직면하였던 것이다.

해안마을의 안전지대로 피신한 주민들 또한 형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산 사람과 협력한 마을사람'으로, 또는 '공산당 물이 들었다'고 많은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겪어야 했으며, 끝내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소개된 마을을 유격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축성 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민보단원이 되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갈등관계가 있어왔다. 중산간의 유림마을이 제주도의 중심 마을이었던 시절에는 해안마을을 '보재기 마을'이라 부르면서 천시하였다. 그러다가 해안마을로 제주도 마을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일제시대 이후에는 해안마을 사람들이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웃드르 맨주기'라고 천대하였다. 물론 중산간 마을이라고 해도 양반 마을과 이보다 더 산쪽으로 올라가서 화전민이나 테우리, 솥을 굽는 사람들이 정착을 한 마을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부터 있어왔던 서로간의 갈등은 4·3을 겪으면서도 나타났고 당시 '산(山)사람(무장대)'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해안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해안마을로 내려간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겪는 고초에 대한 설명에서 중산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인 '웃드르 것'을 언급한 증언<sup>14)</sup>도 있었다. 당시 해안 마을에서 소개민들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없는 형편에서 '웃드르 것들'이란 말은 해안 마을로 내려간 중산간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천시하는 상징적인 말이 되었다.<sup>15)</sup> 1949년 말 이 되면서 해안 마을로 소개되어 내려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마을로 이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안 마을과 가까운 지역들의 경우에

14) 양중혁(69세, 남), 개인면담, 제주시 노형동, 1999년 7월 21일.

15) 송성대(1996), 『濟州人の海民情神』, 제주문화, p. 202.

한정되었다. 동광리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무등이왓은 경찰과 군인들의 토벌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지내던 무등이왓 사람들은 먼저 재건이 된 서광리(현재의 서광동리)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서광은 소개지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서광리 전체를 둘러싸는 축성 작업에서부터 주둔하고 있던 경찰들의 모든 심부름을 주민들이 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이 계속되자 다시 해안마을로 내려가는 동광리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 IV. 4·3 이후의 주민의 생활과 경관 형성

##### 1. 복구지 선정과 조성 과정

1948년 11월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중산간 지역의 소개로 인하여 해안 마을로 공간 이동되었다가, 1953년 전후에 전도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복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해안마을로 소개해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들이 복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정책적으로 다시 공비가 출몰할 위험이 있는 지역들은 복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복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취락터만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취락이 서귀면 <영남리>, 동광리의 <무동동>, 노형동의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와홀리의 <물터진골>과 <퀘뜨르>, 소길리의 <원동>, 구좌면의 <다랑쉬마을>이다.<sup>16)</sup> 동광리의 복구 사업은 무장대들이 대부분 토벌되고 토벌작전이 거의 완결될 시기인 1953년 취락재건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95세대 가량이 서광동리에서 1년간 거주하였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 현 위치는 허허벌판으로 농사짓기가 불충분하여 대부분이 타지방으로 떠나가 40여 세대만이 이곳에 정착하여 취락 재건을 폈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sup>17)</sup>

16)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전계서, 전체 내용.

“ 대부분 무등이왓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지금의 자리에 돌아왔주.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한번도 고향에 안오는 사람도 있지만. 축성작업을 할 때는 대단해서, 그때 성을 쌓을 때 썼던 돌들은 지금 이 마을의 집집마다의 돌담으로 변했주.”

당시까지도 폭도들이 다시 출몰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 해서 이곳에는 재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증언이 일반적이다. 만약 재건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등이왓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중 80%가 학살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전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나 그곳에 돌아가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마을 소개당시 타지와 일본등으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고향땅을 밟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하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마을 사람중에 누구에게 조상묘를 부탁하는 대가로 땅 몇평 주고 가끔 연락만 하는 사람도 있주. 그래도 조상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제주도에 와보지 그러느냐 행 물어보면 고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끔찍허텐. 죽기전에는 제주도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 말들 허주.”<sup>18)</sup>

보통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언제 고향땅을 밟아볼까 라는 생각이 정상일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재건 당시 약 다섯 가호<sup>19)</sup>가 자신들의 땅을 찾아 그곳에 집을 지어 살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지금의 마을로 내려와 살았다고 한다. 4·3 당시의 비참한 기억과 잔인한 학살광경이 떠올라 다시 그곳에서 정을 붙혀 살기가 힘들고,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지 사람과 떨

17)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1999년 10월 3일.

18) 신원숙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증언자가 증언함.

19) 신원숙(67세, 안덕면 동광리) 씨의 증언을 통하면 강동화, 강석주, 강씨 성의 할머니, 강재일씨 등이 70년대 중반까지도 무등이왓에 거주를 했다.

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 2. 新·舊 경관 비교

무등이왓의 경제적 상징이었던 예전의 연자방아가 있었던 자리도 지금은 연자방아는 철거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팽나무도 죽어버려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현재 무동동의 토지들은 대부분 타지인의 소유이다.

이처럼 무등이왓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처참했던 기억과 주거지로서의 복구의 불가능은 땅에 대한 애착 또한 없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련없이 자신들의 땅을 거저 주듯이 팔아버렸다. 둘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해안마을로 소개되고 다시 복구를 했으나 무등이왓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발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겠기에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마을 소유의 공동목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증언자의 말은 당시와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해준다.

“그 많았던 목장을 다 팔아 불었어. 그 당시 세금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마을이 망해본 뒤로는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헐값에 팔아분겨주. 경행 몇 년 전에는 우리 마을에 공동목장 해난 자리. 현재는 이슬목장 자리의 땅. 금약에 일부, 서광의 거린오름까지 그 땅들을 다 찾으려고 우리땅이다 해봐도 명의가 딴사람으로 되영 이신디, 경허고 지금은 워낙 땅값이 올랐 쉽게 팔겠허여? 우리가 억울해봐야 할 수 없जू. 죽어본 할오방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재건당시에는 먹기가 바쁘니까 땅1평에 5원, 3원을 쳐서 미련없이 팔았지.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들이지.”<sup>20)</sup>

20) 신원숙(67세, 남), 개인면담, 안덕면 동광리, 2000년 5월 5일.

4·3당시만 해도 길이 놓여 있던 곳은 가시덤불로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해져 버린 곳들이 많았다. 또한 1996년에 새로운 길이 포장되면서 예전의 올래길 등이 사라져 버린 곳들도 많았지만 지도를 통해 읽을 수 있다. 1913년에 제작된 간장리 부근의 지적도에 의하면 현재 동광리 중심지인 이곳은 당시의 무등이왓의 거주공간과 비교했을 때, 집단적인 가옥구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기 보다는 주로 밭농사 지대임을 알 수 있다.

1956년 이곳에 축성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의 대정으로 향하는 길이란 곳을 따라 축성되었다. 당시 축성을 쌓는데 사용했던 돌들은 현재 각 가옥의 돌담으로 변용되었다. 당시 무등이왓의 경관을 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도가 1913년에 제작된 지적도상에 덧 그려지는 형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답사를 해 본 결과 현재의 景觀과 지적도상의 경관이 다른 부분이 몇군데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 15일에 집단 학살을 당한 학살터는 지번이 3개로 나누어진 지역이나 현재는 3개의 지번이 모두 합쳐져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그 학살터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무등이왓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포장된 도로가 1913년에는 삼거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시에는 광고판이 놓이게 되는 중심 도로였다. 하지만 현재는 자칫하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한 길로만 포장이 되어버려 연자방아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길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길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데, 50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sup>21)</sup>

현재 동광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4·3이 종료되고 몇 년이 지난 1953년에서 1959년 사이 복구사업이 진행될 시기에 화순, 사계, 모슬포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산으로 올라갔다가 귀순한 이 마을 토박이들이 주를 이루며 1970년대에는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타지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보통 8·15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현재는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광분교의

21) 남제주군청의 건설과의 보관 문서 자료 열람.

학생수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여 현재는 4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림 9. 동광분교가 있는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자료: 1999년 10월 3일 필자 촬영

그림 10. 현재의 원물오름의 모습

자료: 2000년 5월 11일 필자 촬영.

## V. 요약 및 결론

4·3의 명칭에서부터 성격 규명, 인명 피해 파악에 이르기까지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4·3에 대해 좌·우 이데올로기를 부여하며 그 당시 피해자들을 무분별적으로 좌익으로 몰아버리는 경향이 남아 있어 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48년 4월 3일 이래 1980년대 후반까지 근 40년간 정부가 진상 파악은 물론 논의조차도 금기시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자료의 불충분함과 일부 증언자들의 갈등이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증언을 해준 이들도 많았다.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4·3을 겪으면서 제주도민들이 가져왔던 역사적 한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인간들의 거주공간을 상징하는 최소 단위인 마을의 경관이 한 시기에 변하게 만든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동광리의 중심지였던 무등이왓의 집촌(集村)을 이룬 마을이 다른 정책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 공간이 파괴되고 다시는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가지 못한 이 과정을 그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 해석하려 한다면 더 이상의 이데올로기적 갈등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 지리적 해석만이 그 당시 제주도의 커다란 역사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제주도의 취락분포와 도민들의 거주공간의 역사적 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중산간 마을들을 단위로 하여 역사적 경관을 복원하고 마을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전체적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제주도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 전체의 해



안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이해할 때 역사적 시기에 따라 마을의 형성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또다시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게 된, 그리고 동적인 경관변동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은 제주도의 역사지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당시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복구하고 재현해 보려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주지역을 이해하고 후세에 역사를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 (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4·3은 말한다(1-6권)」, 전예원.
- 제주 4·3연구소(1993), 「이제사 말했수다(II)」.
- 고승제(1997), 「한국 촌락 사회사 연구」, 일지사.
-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서울.
- 송성대(1996), 「濟州人の 海民情神」, 제주문화, 제주.
- 이해준(1996), 「조선시기 村落 社會史」, 민족 문화사, 서울.

### <논문>

- 강동진(1997), “경주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 방법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 강만길(1981), “일제시대의 火田民 생활”, 「동방학지」, 제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 김남제(1992),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김덕현(1989), “최근 한국촌락의 경관변화에 대한 이해”,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 김석준(1986), "제주도 중산간 취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대 석사논문.
- 김승태(1982), "제주도 연자매와 그 民謠 研究".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 박명립(1988), "제주도 4·3 민중 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박서호(1993), "사회와 공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박사논문.
- 양정심(1995) "4·3 항쟁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한권(1994), "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 엄서호(1979), "역사경관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오홍석(1974),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동국대학원 학위 논문.
- 오홍석(1987),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도 연구」 제4집.
- 이문중(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제2호.
- 이정근(1972), "한국 자연부락의 공간구조", 서울대 석사논문.
- 이준선(1982), "강릉지역의 고대 산성", 「지리학」 제25호 대한지리학회.
- 이준선(1982), "임야개척에 의한 촌락 형성 과정-강릉시 남교-금광평 일대의사례 연구". 「관동대 논문집」 제10집, 관동대.
- 장제익 (1980), "제주도 중심 취락의 변모", 경희대 석사논문.

<기타>

남제주군지.

제주도의회(1997), 제주도 4·3 피해 보고서.

서광 국민학교편(1986), 서광동 서리 및 동광리 향토지.

조선총독부 편(1912),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제29호.

4·3장정, 제주 4·3연구소.

김창후(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봄호.

제주신문. 1994년 4월 19일자, "4·3폭동과 과잉 진압".

제주신문, 1993.7.2.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제주신문, 1994.4.7 "제주 4·3사건 유감".

〈증언자〉

강춘화(83)- 제주시 연동 거주.

신원숙(67)- 안덕면 동광리 거주.

양중혁(69)- 제주시 노형동 거주.

하춘자(63)- 안덕면 서광리 거주.

## 4·3 and transfiguration of residential space in Jungsankan village

Kim, Ji-su

### summary

A village could be the smallest space to expose the vestiges of human life in the historical flow. Because everything in a village always exists in space-time, it is acknowledged through spatiotemporal experiences. The phenomena in the frame of spatiotemporal experiences can be scientifically brought to light through the explanation of structural mechanism. However, the inference of the structural mechanism is also possible by the help of actual experiences of the spatiotemporal phenomena.

To study the scenic change of a village, the temporal concept named history must be considered. Thi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scene in general, when studying the daily living history of the people who lived the space in the historical mechanism.

In the history of Jeju, 4·3 is the strongest case related to the historical mechanism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experiences of the villages. Especially in those days of 4·3 deployment, Jungsankan area was considered as a sincerity area, and the removal order imposed on the area caused a large change, regardless if the residents of the area knew the ideology. In the view of this historical event, the residents of Jungsankan village in Jeju was forced to move from their old residential space in the flow of the times, and the old space where they lived had been changed into a different space structure so far.

Among Jungsankan villages, I selected a natural village named

Moodungyeewatt for my study that held the largest number of households and residents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undary, Rie. And I also tried to trace the meaning from the reappearance of the historical space by examining the change of the living space and reviving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at that time.

Under the worst condition to settle like other villages in Jungsankan area, it was difficult to form a village due to the lack of drinking water in Moodungyeewatt, the selected area for the study. But the place was suitable for fire-field farming. In the records of the 59th binary term of the sexagenary cycle, 300 years ago, it was recorded that disseizees and refugees by the authorities moved in and settled by burning ground off for cultivation.

The major crops were millet, buckwheat, barley and bean as well as abundant potatoes. Under the proper environment for stock farming with those farm products, Moodungyeewatt was a natural village with around 87 houses that were in good financial conditions in Dongkwang-Rie, Ahnduck-Myun. And, there was also a keen harvest exploitation of the authorities. The Yimsool agrarian revolt started in 1862 against the exploitation and the agrarian revolt in 1898 (revolt of Bang Chil-sung) originated in the village.

The place was also the center of Bochungyo revolt raised in 1918 against the Japanese suppress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became the important place of traffic connecting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mountain after building roads wide enough for carts from Joongmun to Hanlim and from Daejung to Cheju city. With the outbreak of the historical event called 4·3 in 1948, the Jungsankan area, over 5Km from the coast, was considered as a 'hostility area'. And declaration-whoever passing the area would be considered as rioters and shot-destroyed

gradually the central village of community. The massacre of civilians was mostly executed amid the deployment of the scorched-earth operation including reduction, removal and punishment.

Without any prior notice, the operation of village liquidation was launched. Most of the residents of the Jungsankan area without knowing any ideologies were killed, just because they gave some foods to the mountain people (men-at-arms) who were hungry and needed foods. In Dongkwang Rie in November, 1948, indiscriminate massacre and incendiarism were frequent without any direct removal action by military forces. Starting from the slaughter of around 10 young boys on October 15, 1948 of the lunar calendar, around 200 people were sacrificed till the end of 4·3 event. Moodungyeewatt, a group community, formed by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in Dongkwang Rie before 4·3 became losing its scene gradually, as the people suffering the historical event called 4·3 left their place to live, and the their houses were on fire. Most of the residents moved to coastal villages or just left recklessly the Jungsankan area without knowing where they were going. However, the people who left their houses must suffer continuous troubles.

Above all, the trouble was the latent complication between the Jungsankan people and the coastal village residents. The life of the people who left their places was not particularly different from the death. Jeju-Do people who moved to the mountain had to be troubled with the pursuit of punitive forces and should also undergo the hunger and biting cold. The people who moved to the coastal villages had to suffer the same pain. At the cardinal points in 1953, the restoration order was given to the Jungsankan village. However, the authorities imposed to assign the villages to restore and forced not to restore some current villages politically. The reason of non-restoration of some

current villages was that red guerillas made possibly frequent appearances at some villages.

The restoration business of Dongkwang-Rie was started in 1953, and about 95 families lived primarily in the Western Kwangdong-Rie for one year and moved to the current place. The current downtown of Dongkwang-Rie was a vast expanse of plain not good enough for farming. And, as most of the people left for other places, it was reported that only 40 families settled in the place and had to undergo very hard troubles in rebuilding the village.

Moodungyeewatt was excluded from the restoration area list and became losing its living environment for people as times go by. But the old community site with the hurts by the historical event is only telling the existence of the village now. The innocent civilians of the Jungsankan area without knowing any ideologies at that time became the victims of the periodic situation. And the community they formed for a long time disappeared in a second. It will have a big significance to revive the periodic conditions and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that it is still not possible to go back to the village. In addition, if you understand the small area and the dual community structures of Jeju and the different consciousness of the village people in the structures, it may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whole in general.

In a wor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local society called Jeju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area where the vestiges of the spatiotemporal experience of the historical events remain still. I believe that taking interest in restoring and reviving the area even to raise the historical lesson of that time will be very significant to understand and hand our community down to posterity.